

농촌지역 조부모-손자녀 가정 유아의 양육에 대한 조부모의 어려움*

Grandparents' Difficulties in Rearing Grandchildren in South Jeolla Rural Areas

서 현**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조교수

Seo, Hyun**

Dept. Early Childhood Education, Chosu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purposed to survey grandparents' difficulties in parenting their grand children at grandparent-grandchild households in South Jeolla rural areas.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from January to October, 2008. The subjects were eight grandparents living with their grandchildren in Boseong-gun, Gangjin-gun, Yeonggwang-gun, Hampyeong-gun, Haenam-gun and Damyang-gun in South Jeolla province.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grandparents' difficulties in parenting grandchildren ar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of variable factors: 'Difficulties related to grandparents themselves'; 'Difficulties related to their grandchildren'; 'Difficulties related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 and 'Difficulties related to their grandchildren's peer group or surrounding people'. The main difficulties in these categories are 'poor, aging and weak conditions of grandparents,' 'conflicts in their parenting attitude to have compassion on grandchildren,' 'grandparents' not enough educational support to grandchildren due to their ignorance about today's education system,' and 'anxiety about the possibility for their grandchildren to be abandoned once again.'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a piece of basic information for desirable supports to grandparent-grandchild households.

Key Words : grandparent-grandchild households, grandparents, grandchildren, rural area, parenting attitude

I. 서론

이미 노부부 또는 혼자 사는 노인 가족이 주를 이룬지 오래인 농촌지역에 언제부터인지 젊은이는 보이지 않는데 아이들 소리는 간간히 흘러나온다. 도시로 나간 젊은 부부들이 이혼하거나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농촌의 조부모에게 아이들을 맡겨서이다. 이처럼 부모 없이 조부모-손자녀로만 이루어진 가족들이 농촌에 부쩍 많아졌다. 갈라서는 젊은 부부는 무책임하게 언제 데려간다는 약속도 없이 아이들을 농촌의 부모에게 떠넘긴다. 아이들은 부모와 이별했다는 충격에 더해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까지 안고 지내기 십상이다.

(한겨레신문, 2000. 7. 17)

농촌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가정이 농촌의 신소외층이 되고 있다. 최근 들어 조부모 가정이 결손가정 중

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으나, 그 실태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한겨레신문, 2005. 9. 19)

현대 사회로 오면서 가족 집단은 보다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혼합 가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과 문화 및 생활 형태를 가진 가족, 장애아나 특수아가 있는 가족, 집이 없는 가족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가 다양하다. 유아는 부모, 친척, 동료, 교사 등과 같은 성인이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기관을 포함한 더 큰 공동체 사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성인들은 유아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가족형태, 인종, 사회·경제적 수준, 종교의 차이뿐만 아니라 지방이나 도시와 같은 지역의 영향까지도 고려하는 시야가 필요하다 (김영옥, 2007).

* 이 논문은 2008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Seo, Hyun

Tel: 062) 230-6428

E-mail: seo-h@chosun.ac.kr

다양한 가족 형태 중 조손 가정은 특히 농촌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조부모와 손자녀가 함께 사는 조손 가정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995년 3만5194가구였던 전국 조손가정 수는 2000년 4만5225가구, 2005년 5만8101가구로 크게 늘었다. 전체 조손가정 가운데 농어촌 지역(읍·면단위)에 사는 가정의 비율은 2000년 42.5%(1만9229 가구)였으며, 2005년엔 37.2%(2만1633 가구)였다. 2005년 기준으로 전국 가구 수(1599만 가구) 대비 읍·면지역 거주 가구(316만 가구) 비율이 20%가 채 안 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농어촌에 조손가정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한겨레신문, 2008. 7. 31). 또한, 점차 증가하는 이혼이나 부모의 가출,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으로 앞으로 이러한 조손가정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조부모가 자신의 자녀 대신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기간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정일선, 2004).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서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취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양육하는 경우와 부정적인 가족문제의 발생으로 인해 부모역할을 상실한 성인자녀를 대신하여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전자는 조부모가 맞벌이 부부와 따로 혹은 함께 살면서 자녀들이 일하는 동안 유아를 돌보는 것으로, 비록 육체적인 힘겨움을 호소하지만 양육조력자의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어 오히려 노년기에 가질 수 있는 가벼운 우울증의 치유에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선주, 1990). 또한, 손자녀를 전담으로 양육하는 조부모들은 그들의 삶속에서 충만함과 새로운 의미 그리고 목적을 발견하기도 하고(Kennedy & Keeny, 1998),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경험했던 과거의 다양한 감정들을 다시 맛볼 수 있는 기회로 여기거나 대리양육으로 인해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부모역할의 기회를 다시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갖기도 한다(Burton, 1992).

반면에 가족해체로 인한 경우는 이미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오히려 부양을 받아야 될 노년기에 접어든 대부분의 조부모들이 자녀를 대신하여 부모역할까지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다. 또한 가족해체를 경험한 유아들도 심리·정서적인 외상을 입으며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실현수준이 낮게 나타난다(전선재, 1997). 또한, 손자녀 전담 양육 조부모들은 상당한 정도의 역할의 제한성, 사회적 고립, 재정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Kelly, 1993), 다른 유형의 조부모들에 비해 손자녀 양육의 경험이 조부모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조부모와 손자녀와의 관계가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였기 때문에 조부모는 손자녀와의 관계

를 통해 생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자녀세대가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손자녀의 일차 양육자가 되는 일은 스트레스와 정서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 되고 있다(Roithmayer, 2001).

일반적으로 조부모가 자녀 없이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의미하는 조부모-손자녀 가정을 지칭하는 개념은 다양하다. 부모로서의 조부모, 양육자로서의 조부모,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 보호하는 조부모 등의 개념들은 모두 손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조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옥경희, 2005). Fuller-Thomson과 Minkler (2000)는 조부모-손자녀 가정을 '최소 6개월 이상 부모 역할을 대신하고, 손자녀 양육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자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으로 구분하여 부모 없이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족형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조부모-손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를 이와 같이 제한하고자 한다.

Smith와 Dannison(2002)은 양육부담에서 벗어난 조부모가 성인자녀를 대신하여 다시 어린 손자녀를 책임지는 일은 사회의 기대나 규범에서 벗어나며, 가족의 발달주기 측면에서도 예기치 않았던 일이라고 하였다. 또한 조부모-손자녀 가정의 조부모들은 손자녀의 양육부담, 성인자녀들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했다는 자책감, 본인의 노화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등을 해결해야 하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처럼 조부모-손자녀 가정의 열악한 상황은 양육 책임자인 조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동시에 양육 받는 손자녀의 발달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조부모-손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야 할 시기임을 선행연구(김득희, 황경영, 1995; 김혜선, 2004, 2005; 김미혜, 김혜선, 2004; 옥경희, 2005)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손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조부모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실태 뿐 아니라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이 소개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수와 영역에서 시작단계에 놓여있는 실정이다(옥경희, 2005).

우리나라 조부모-손자녀 가정을 다룬 선행연구로는 양육실태(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우울감(최해경, 2002)과 가족기능(박창기, 2002), 양육스트레스(김혜선, 2005), 생활만족도(김미혜, 김혜선, 2004), 손자녀 양육(옥경희, 2005)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조부모-손자녀 가정의 양육실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모두 초등학교 이상의 손자녀 양육에 대한 조부모 생활의 양적인 접근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유아기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의 어려움을 종합적이면서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가 여

성노인에 한정되어있거나(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간단한 질문지를 배부한 후 분석하여 한글을 잘 모르는 조부모들이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박창기, 2002),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신혜섭, 1999) 조부모의 삶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조부모-손자녀 가정도 그 비율이 증가하면서 손자녀의 연령이 영유아기까지 낮아지고 있으며 양육기간도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옥경희, 2005)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조부모-손자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유아기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의 어려움을 심층면담을 통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질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최근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조부모-손자녀 가정이 농촌지역에 많이 분포되어있고(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김미혜, 김혜선, 2004; 김혜선, 2005; 박창기, 2002; 정일선, 2004, 한겨레신문, 2000; 2005; 2008), 그들 대부분의 조부모는 자녀 가족의 해체로 인해 손자녀를 양육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농촌지역 조손가정 조부모는 사회적 지원망이 갖추어져 있는 도시지역 조손가정의 조부모에 비해 정서적으로 보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김혜선, 2005), 본 연구에서도 농촌지역 조부모-손자녀 가정으로 제한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심층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지역 조부모-손자녀 가정의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살펴본 후 실질적인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농촌지역의 조부모-손자녀 가정 유아를 양육하는 조부모는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조부모-손자녀 가정 유아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조부모의 삶속에 드러나는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한 질적 연구(qualitative study)이다. Bogdan과 Biklen(1998)은 질적 연구의 특성으로 자연적인 환경이 자료의 직접적인 근원으로 간주되면 연구자 자신이 주된 연구의 도구라는 점, 숫자가 아니라 말이나 그림의 형태를 따는 기술적 자료를 사용한다는 점, 결과나 산물보다는 과정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 수집한 자료를 귀납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질적 연구에서는 의미의 발견이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의 질적 연구와 관련한 연구 방법 및 절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선정

질적 연구를 구체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연구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보성군, 강진군, 영광군, 함평군, 해남군, 담양군에 살고 있는 조부모-손자녀 가정의 조부모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접근의 용이성이었다. 즉, 연구자와 함께 유아교육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함께 하는 유치원 교사 및 어린이집 교사가 조부모-손자녀 가정 유아들을 교육하고 있었고, 그들의 학부모인 조부모와 친밀감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접근하기 용이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선정된 연구대상자들은 특정지역에서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가장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는 조부모이기 때문에 접근의 용이성을 지닌 반면, 조부모-손자녀 가정에서 나타나는 유아 양육에 대한 모든 조부모의 일반적인 어려움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의 제한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둘째, 조부모-손자녀 가정은 특히 농촌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김미혜, 김혜선, 2004; 김혜선, 2005; 박창기, 2002; 정일선, 2004). 이에 연구대상자로 선정된 조부모-손자녀 가정에서 유아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조부모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접근의 용이성과 부합되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조부모들과 함께 손자녀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면담할 수 있었다.

2) 심층면담

본 연구대상자의 심층면담은 2008년 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이루어졌다. 조부모의 개인적 사정으로 면담 시간이 맞지 않을 때는 금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시간을 조정하여 면담을 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심층면담은 연구자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람으로부터 발견해내기 위해 실시된다.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를 참여하기 위해 하루 종일 연구자가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부모와 면담을 위주로 그들의 삶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분석하였다. 면담을 할 때 가끔 손자녀들이 옆에 와서 조부모와 대화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조부모와의 심층면담 내용을 기초로 상황을 예측할 수 있을 뿐 조부모의

삶을 중점적으로 분석함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였다.

이처럼 직접 조부모의 삶에 참여하지 못하는 조부모-손자녀 가정의 상황에 대해서 일어난 사건이나 관찰 대상자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내용들에 관한 것들이 심층면담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의 예이다. 즉, 면담은 우리가 행동, 감정 혹은 사람들이 그들 주변 세계를 해석하는 방법을 관찰할 수 없을 때 불가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8명의 조부모와 수시로 심층적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조부모들이 가족해체로 인해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연구 초기에는 개인적인 가정 사정을 연구자에게 알려준다는 것을 꺼려하였다. 이처럼 연구 초기에는 조부모와 친밀감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분석하기 위한 면담내용보다는 연구자와 친해지기 위해 조부모들이 좋아하는 과일이나 담배를 사가지고 가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일상을 주고받는 이야기를 하였다. 연구가 진행될수록 조부모들은 마음을 열기 시작하여 친밀감이 형성되었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심층적 면담을 실시하기 수월하였다.

농촌지역 조부모들은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였기 때문에 주로 면담 시간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루

어지거나, 저녁 식사 후에 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심층 면담은 연구자가 매주 면담을 하러 농촌지역을 찾아가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부모들의 적극적인 동의하에 주말을 주로 이용하였다. 조부모의 사정으로 인하여 주말에 면담을 못할 경우에는 연구자의 강의를 없는 7월과 8월에 조부모가 원하는 날짜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면담을 실시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면담을 할 때는 이야기에 집중하다가 기록을 놓칠 수가 있어, 제보자의 동의를 얻어 디지털 녹음기를 사용해서 정확한 기록을 남겼다. 디지털 녹음기는 녹음한 내용을 바로 파일로 만들어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연구 대상의 심층면담자의 구성은 <표 1>과 같고 연구대상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은 모두 기호로 처리 하였다.

3) 자료 분석

심층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에 대한 분석은 자료의 수집과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크게 조부모와 심층 면담 시 얻은 녹음테이프, 반구조화된 질문지이다. 먼저, 심층 면담을 한 내용을 전사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전사한 내용을 체계화하는 방법에 따라 진행되었는데,

<표 1> 연구대상 심층 면담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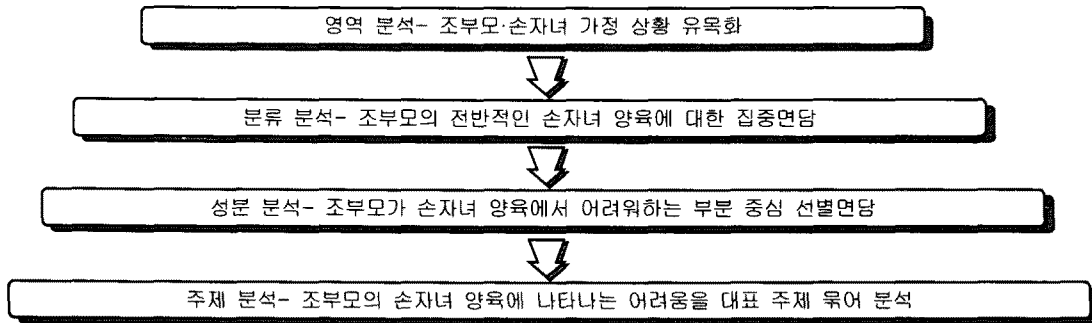
순	연구 대상	연령	지역	직업	양육하는 손자녀 유아	양육기간 (2008년 2월기준)	양육동기
1	조모 A	72세	전남 보성군	농업	만5세(남):유치원 재원 만7세(여):초등학교 재학	2.6년	아들, 며느리 이혼 후 아들 재혼 서울거주 며느리 혼자 경기도거주
2	조모 B	76세	전남 강진군	농업	만3세(여):유치원 재원 만6세(여):초등학교 재학	3.4년	아들, 며느리 이혼 후 아들 혼자 부산거주 며느리 혼자 서울거주
3	조부 C	73세					
4	조모 C (부부)	67세	전남 영광군	농업	만4세(여):어린이집 재원 만5세(남):어린이집 재원	0.8년	아들, 며느리 별거중 아들 대구 거주 며느리 경북 거주
5	조부 D	69세					
6	조모 D (부부)	65세	전남 함평군	농업	만4세(남):유치원 재원	3.7년	아들, 며느리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끔 아들, 며느리 서울거주
7	조부 E	71세	전남 해남군	농업	만5세(여):어린이집 재원	4.2년	며느리의 중병으로 아들은 서울에서 일일노동일하며 며느리 병간호중.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말끔
8	조부 F	68세	전남 담양군	농업	만3세(남):어린이집 재원 만5세(여):어린이집 재원	2.3년	아들, 며느리 이혼 후 모두 재혼 아들은 대전거주 며느리는 서울거주

Spradly(1980)가 제시한 영역 분석(domain analysis)을 기초로 하여 분류 분석(taxonomic analysis)을 하였다. 그리고 영역분석과 분류분석을 바탕으로 성분 분석(componential analysis)을 한 후 주제 분석(theme analysis)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영역 분석은 주로 2월 중·하순에 이루어졌다. 이 기간에는 연구자가 조부모 대상으로 만든 개방형 질문지 수합하여 조부모-손자녀 가정의 전반적인 상황을 유목화 하였다. 즉 조부모-손자녀 가정이 형성되게 된 배경이나 양육 동기, 대상 조부모의 배경, 양육하는 손자녀의 배경, 손자녀 양육기간, 손자녀 부모에 대한 배경 등을 질문하였던 면담 내용을 분석하여 유목화 하였다. 분류 분석은 주로 3월부터 8월까지 이루어졌는데 조부모-손자녀 가정 특성의 영역을 나눈 것을 토대로 영역별로 조부모의 전반적인 손자녀 양육에 대한 집중면담이 진행되었다. 즉, 조부모-손자녀 가정의 조부모는 손자녀를 어떤 이유에서 양육하게 되었고, 손자녀 양육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지도하는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 가정에 가장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해 집중면담

을 하였다. 또한 조부모가 자신을 고려했을 때, 손자녀 유아를 고려했을 때, 유아교육기관을 고려했을 때, 주위 사람들을 고려했을 때를 중심으로 면담을 주로 하였다. 면담내용은 양육실태(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우울감(최해경, 2002)과 가족기능(박창기, 2002), 양육스트레스(김혜선, 2005), 생활만족도(김미혜, 김혜선, 2004), 손자녀 양육(옥경희, 2005) 등과 같은 선행 연구를 기초로 구성하였으며, 면담이 진행될수록 조부모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공통 내용의 구성 과정을 통해 면담내용이 재구성되어 첨가되었다<표 2>.

성분분석은 8월부터 9월까지 주로 이루어졌는데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에서 어렵다고 면담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면담한 것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때에는 조부모-손자녀 가정의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며 나타나는 어려움을 분석하기에 좀 더 용이하였다. 조부모들은 자신의 노화로 인한 신체적 쇠약 및 경제적 빈곤, 양육태도의 갈등, 교육에 대한 무지함, 부모에게 버려진 유아가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손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분석이 이루어져갔다. 주



[그림 1] Spradly의 자료 분석 절차

<표 2 > 면담내용

면담내용	
조부모가 자신을 고려했을 때	- 조부모는 손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게 되었는가? - 조부모의 신체적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 조부모의 직업은 무엇이며 현재 경제적 상태는 어떠한가? - 조부모 가정에게 가장 시급하게 도움이 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조부모 자신과 관련하여 손자녀 양육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조부모가 유아를 고려했을 때	- 손자녀를 보면서 주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 - 손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양육태도를 가지고 교육하는가?
조부모가 유아교육기관을 고려했을 때	- 손자녀를 어떤 교육기관에 보내고 있는가? - 손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낸 후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
조부모가 또래아이나 주위사람을 고려했을 때	- 손자녀가 또래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가? - 손자녀를 양육하게 된 이유를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 손자녀를 바라보는 주위사람들에게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어떤 것인가?
기타	-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낀 것을 질문 주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말 해 보기

제 분석은 9월 말부터 10월까지 주로 이루어졌으며,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에 나타나는 어려움을 대표 주제로 묶어서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점차적으로 조부모가 자신, 유아, 유아교육기관, 또래 아이나 주위사람을 고려했을 때의 어려움이라는 네 가지의 큰 주제로 나눌 수 있었으며 성분분석에서 이루어졌던 선별적 심층면담을 통해 네 개의 대주제마다 하위 소주제의 어려움을 찾을 수 있었고 이를 <표 3>과 같이 범주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작업은 분석을 시작할 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본 연구자의 독단적인 주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료 분석 시 본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삼각구조화(triangulation)기법을 사용하였다. 삼각구조화 기법이란 방법적 다각화를 통해 현상을 연구하는 것으로 다양한 자료 수집 채택, 다양한 자료 원천 활용, 둘 이상의 보조 연구진을 구성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김영천, 1999).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간과할 수 있는 내용 타당도 및 안면타당도 문제를 보완할 수 있었으며 질적 연구로서의 타당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기 위하여 조부모와의 심층 면담, 문헌 연구를 통해 다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해석은 연구자 자신뿐만 아니라 조부모의 손자녀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자의 친구인 유아 교사 및 유아교육 전문가 2인의 평가와 조언을 바탕으로 '아하 반응'의 정도를 반영하였다. 즉, 본 연구자가 자료 분석을 하면서 문헌 및 선행연구의 이론적 관점에 맞추어 분석을 하려는 경향을 보일 때 유아교사는 이론의 틀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현상을 적시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었다. 또한, 유아교육 전문가는 이론과 실재를 통합하여 가

치 있는 분석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연구자의 자세를 지적해 주었다. 이렇게 아하 반응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은 질적 연구가 가질 수 있는 편견을 최소화하고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III.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담자료로부터 조부모-손자녀 가정에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에 나타난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텍스트와 주제 진술로 여러 번 돌아가 반성적 사고를 하였다. 그 결과 연구 참여자가 말한 의미와 진술은 크게 연구자가 구성한 4개의 범주 및 대주제로 도출 되었으며 각 범주마다 하위 소주제가 형성되어 조부모-손자녀 가정 유아의 양육에 나타난 조부모의 어려움은 다음 <표 3>과 같이 그 의미를 제시할 수 있다.

1. 조부모가 자신을 고려했을 때: 돈 없이 늙어가는 나약한 자신의 몸으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

가. 늙어가는 나약한 몸, 산더미 같은 농사일, 아이 아플 때 병간호하기도 힘든 생활

손자녀 유아를 양육하게 된 농촌지역의 조부모는 노화와 관련하여 신체적으로 취약해질 뿐 아니라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의 85%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기도 하고 그 중 50%는 활동에 제한을 받기도 한다(Kalish,

<표 3> 조부모-손자녀 가정 유아 양육에 대한 조부모 어려움의 범주

범주	대주제	소주제	빈도(%) n=8
조부모가 자신을 고려했을 때	▶ 돈없이 늙어가는 나약한 몸으로 인한 양육어려움	▪ 늙어가는 나약한 몸, 산더미 같은 농사일도 힘들고, 아이 아플 때 병간호하기도 힘든 생활	8(100)
		▪ 살아가는 것 자체를 걱정해야하는 경제적 빈곤	8(100)
조부모가 유아를 고려했을 때	▶ 한없이 불쌍한 손자라는 생각으로 인한 양육태도의 갈등	▪ '야단치기도 불쌍해' 그냥 두거나 무조건 감싸주기	7(87.5)
		▪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 강해져라' 엄하게 키우기	6(75.0)
조부모가 유아교육 기관을 고려했을 때	▶ 최근 교육에 대한 무지함과 두려움으로 인한 교육 지원의 어려움	▪ 짧은 배움, 구닥다리 배움은 오히려 아이 교육방해	8(100)
		▪ 유아교육기관에 직접 참여하여 지원하는 것에 대한 버거움	7(87.5)
조부모가 또래아이나 주위사람을 고려했을 때	▶ 한 번 버려진 내 손자, 두 번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 또래 아이보다 못나고 불쌍한 아이로 보는 주변 사람들의 편견	7(87.5)
		▪ '내 손자의 부모는 서울에, 미국에' 어쩔 수 없는 거짓말	6(75.0)

1975). 또한, 농사를 오래 짓다보면 농작업에 의한 불량한 작업자세, 유해물질취급, 장시간 작업으로 인한 근육골격계 증상이 나타난다. 이를 '농부증'이라 하며 농업에 장시간 종사한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8가지 증상 즉, 어깨결림, 요통, 손발저림, 야간빈뇨, 호흡곤란, 불면, 어지러움, 복부 팽만감 등이 발병하게 된다(안옥선, 2000).

Erikson(1963)은 노년기를 인생의 마지막 총정리 하는 통합의 시기로 보고 일생을 잘 통합한 성숙한 사람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모든 측면을 평온하게 수용하여 자아실현을 계속할 뿐 아니라 죽음을 또한 담담하게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반면 이 시기에 통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존감이 크게 상실되어 인생에 대한 절망을 느끼게 되는데 이 때 적절한 노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망감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손자녀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농촌지역 조부모는 성숙한 자신의 자녀와 손자녀를 중심으로 새로운 애정적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통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보다, 노령으로 쇠약해져가는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갑자기 어린 손자녀 양육이라는 짐을 지게 되어 양육에 대한 부담스러움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된 조부모와의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 나이가 일흔하고도 여섯 살이여. 둘째 손녀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내게 왔어. 그때 큰 손자는 달려 다니느라 정신없고... 내가 농사일을 안 할 수도 없고 둘째를 일할 때 업고 키웠어. 원래도 내가 몸이 아프는데 그때 골병들었어. 아이가 아플 때는 미치겠어. 내 몸도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어. 내 육신도 천근만근인데... 자식 다 키우고 이게 된 일인지...

(76세 조모 B와 면담, 2008. 4. 26).

내가 날마다 병원을 가야할 몸인데 농사일도 많고... 그나마 시간이 있어도 저 어린 것 때문에 병원에 갈 시간도 없어. 농사일이라는 것이 해도 해도 끝이 없어. 특히 농번기 때는 우리 손자들 볼 시간도 없어. 할멈도 없고 나 혼자 키우려니 더 힘들어.

(68세 조부 F와 면담, 2008. 5. 24)

하루는 애기가 느닷없이 잠도 안자고 죽을 것 같이 울기만 하는 것이여. 열이 나갈래 해열제 먹었는데 며칠 동안 계속 아팠어. 내가 농사일이 많고 힘들어서 제대로 애기를 못 봐. 나중에 열이 계속 안 떨어져서 병원에 가려는데 여기에서 읍내 나가는 차도 없고 택시 값은 비싸고 속만 땀제. 옆집 박씨가 겨우 읍내 병원에 데려다 줬어. 내 몸 움직이기도 힘든데 애기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도 난 살만큼 살았으니 저 어린 것을 치료해야제.

(72세 조모 A와 면담, 2008. 10. 18)

이와 같이 조부모들은 노령으로 인한 자신의 신체적인

쇠약함만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어린 손자녀를 맡게 되어 더욱 힘들다고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또한 아이들이 아플 때 젊은 부모처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고 농사일이 많아서 유아들과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없는 현실이 힘들다고 하였다.

나. 살아가는 것 자체를 걱정해야하는 경제적 빈곤

사회적으로 직업적 역할이 감소되어 경제력을 상실하게 된 노년기의 기본적인 경제적 빈곤 상태에서 손자녀 양육은 교육비, 의료비, 의식주의 추가적인 증가로 조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정일선, 2004). 또한, 한국노인문제 연구소(1992)는 경제적 빈곤(56.9%)을 노후 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밝히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 저소득층의 조손가족 조부모들은 노후 생활비의 주 수입원을 자녀에게 의존하는 일반노인과는 달리, 빈곤이라는 취약한 환경 때문에 정부로부터 생계 지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의 비공식적 지원 외에는 정서적이거나 사회적인 자원을 제공받기 어렵고, 그 결과 일상적인 활동, 삶의 의미, 목표, 사회적 교체 등에서 일반노인보다 더 낮은 만족도를 보이며, 조부모의 자존감이나 자발성, 인간관계 등도 약화될 수 있다(김정은, 2002). 이와 관련된 조부모와의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 숨을 못 쉬어. 돈 때문에.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며느리가 아파서 오늘, 내일 한다고 덜컥 애를 맡겼어. 내 핏줄인데 어찌겠어. 내가 길러야지. 근데 며느리 병원비도 많이 든다고 아들이 내게 돈을 안 보내줘. 나도 몸이 늙으니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한디... 유치원에 들어가는 돈도 많아. 교재비, 간식비, 뭐가 뭔지 모르디 암튼 돈이 많이 들어가. 농사일해서 농작물을 팔아봤자 돈이 안 돼.

(71세 조부 E와 면담, 2008. 6. 28)

우리 늙은이가 갈 병원비도 없어. 내 신경통 치료만 해도 돈이 겁나게 들어. 우리 영감은 당뇨까지 있어. 병원비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근데 손주 애기들한테 돈 들어가면 우리 영감, 할멈 병원에 가려고 했다가도 손주들에게 쓰게 돼. 늙은이들은 살만큼 살았으니까 애들이 중요하지. 돈을 만들어 보려고 콩이랑 채소를 팔아도 돈이 적어서 당장 또 내일 일이 걱정이 돼.

(67세 조모 C와 면담, 2008. 5. 3)

유치원이고 초등학교고 된 돈이 그렇게 들어가지... 농사지어서 내 것 나만 겨우 먹고 사는데 준비물이라고 몇 만원씩씩 훑 들어가면 당장 쓸 수 있는 생활비가 바닥이나. 저것들만 보고 있으면 가슴이 아파. '내가 못 먹어도 저것들은 먹어야지'하는데도 촌구석에서 농사지어서 돈 벌기가 우리 늙은이들한테는 힘들어. 늙은이는 삼시 세끼만 먹어도 되는데 저 어린 것들은 먹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어. 그걸 내가 다 못해주니 속만 상하지.

(72세 조모 A와 면담, 2008. 4. 9)

농촌지역의 조부모들은 농업 이외에 벌어들이는 수입원이 없었고, 최근 물가는 급상승하고 농작물 값은 하락하여 돈을 모을 수 없어서 유아들을 위한 준비물도 제대로 못 사주고 있음을 안타까워하였다.

2. 조부모가 유아를 고려했을 때: 한없이 불쌍한 손자라는 생각으로 인한 양육태도의 갈등

조부모-손자녀 가정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은 부모 노릇과 조부모 노릇이라는 이중적인 역할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자식을 잘못 키웠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고 그 결과 손자들이 자신에게 맡겨질 수밖에 없다고 자책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한다(Minkler, 1999). 이러한 심리적 상태는 오히려 손자녀 양육시 무거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자식 교육을 잘못했다는 죄책감과 부끄러운 감정들은 조부모 자신의 양육태도에 대한 불신감으로 연결되어 손자녀에게 일관적이지 못한 양육태도를 나타내기도 한다(Elkind, 1990). 이와 관련된 조부모와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재준이를 태어난 지 8개월 되었는데 데리고 왔어. 꿈지락 거리는 아이가 벌써 4년이 넘었어. 며느리는 아직까지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는데 불쌍한 내 손녀에게 어떻게 화를 내겠어. 난 못해. 야속한 세상에 태어난 것도 불쌍한데 저것한테 어떻게 야단을 치겠어. 그냥 예의바른 사람으로 자라주면 그것이 전부야. 그러다가도 늙은 내 신세가 왜 이 모양이나 싶으면 손녀에게 막 화를 내. 나도 나를 모르겠어. 저것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71세 조모 E와 면담, 2008. 4. 5)

어렵게 사는 우리 아들, 며느리가 불쌍하고, 저 어린 것들은 부모 잘못 만난 것이 원 죄라고... 불쌍한 내 손자를 어떻게 야단 쳐. 그냥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난 보기만 해도 불쌍하니까 감싸주려고 하지. 그런데 동네사람들이 우리 손자에게 싫은 소리하면 집에 와서 사정없이 혼 줄을 내 버려. 잘 해줄 때는 엄청 잘 해주는데 화를 낼 때는 내가 심하게 화를 내서 미안하지. 내가 야단치면 우리 할머니 몰래 손자를 안아주기도 하는 것 같아. 내가 저것들 부모가 아니고 할아버지니까 말도 잘 안 듣고, 나도 힘들지.

(69세 조부 D와 면담, 2008. 6. 21)

남들에게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을까 걱정해서 엄하게 키우지. 초등학교 2학년이 큰 손녀인데 버릇없으면 많이 혼내. 이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아. 그런데 이렇게 엄하게 했다가도 부모도 없는데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또

어떤 때는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해. 내가 할아버지라 저것들에게 부모같이 교육이 안 돼. 야단치다가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면 어쩔 줄을 모르겠어. 불쌍한 것들...

(72세 조부 A와 면담, 2008. 4. 19)

우리 아들, 며느리가 이혼을 했어. 근데 모두 재혼을 해 버렸어. 아들도 오늘, 내일 데리고 간다고 말만 하고는 새 며느리가 싫어하니까 아직까지 안 데리고 가. 그러기를 2년이 넘었어. 며느리도 새로 결혼해서 안 데리고 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키우지만 다른 것은 못 해 줘도 예의 바르게 크라고 교육을 시키지. 부모 없는 것이라고 놀림 받는 꼴을 내가 못 봐. 내가 할아버지라 잔정도 별로 없어. 그래서 더 엄하게 키우다가, 보기만 해도 불쌍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한 번씩 맘대로 하라고 내버려 뒀 버려. 저것들을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와. 불쌍해서...

(68세 조부 F와 면담, 2008. 8. 22)

이와 같이 농촌지역의 조부모는 자신의 손자녀를 바라보기만 해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야단치는 것 자체도 마음이 안타깝다고 무조건 감싸주기도 하였고, 반대로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강하게 자라야 한다고 엄하게 교육을 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부모-손자녀 가정에서 조부모의 이러한 두 가지 양육태도는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즉, 조부모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양육관이 있었다더라도 한 가지 형태의 양육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하였고 '무조건 감싸주기'와 '엄하게 교육시키기'의 두 가지 양육태도를 불안정하게 바꾸며 양육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며 '조부모로서 양육한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갈등을 호소하였다.

3. 조부모가 유아교육기관을 고려했을 때: 최근 교육에 대한 무지함과 두려움으로 인한 교육지원 어려움

가. 짧은 배움, 구닥다리 배움은 오히려 아이 교육 방해

조부모는 손자녀를 양육할 때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농촌지역 조부모들은 과거에 학교를 다녀 본 경험이 없거나 다녔다 할지라도 도중에 그만 두어야 하였고, 심지어 현 학교체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낯설음이 많으며, 자신의 자녀들이 유·초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학교체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하였다. 결과적으로 농촌지역 조부모들은 손자녀의 학습과 관련하여 교육적 지도의 열의를 나타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김혜선, 2004). 이와 관련된 조부모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가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 글씨도 잘 못 읽어. 우리 손자, 손녀 교육을 이런 늙은이가 뭘 알겠어. 선생님한테 다 맡기는 것이지. 늙은 나는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 밖에 못해. 글고 신식 교육을 내가 어떻게 알아. 난 몰라. 난 무식쟁이 구식인데... 신식 교육은 젊은 부모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린 못해.

(76세 조모 B와 면담, 2008. 6. 7)

나는 일제시대도 살았고 6.25도 겪었어. 그때 뭘 정신에 학교라고 갔겠어? 배울 기회도 없었지. 한글 조금 하는데 눈도 잘 안 보여서 읽기도 힘들어. 애들은 어린이집에서 잘 배워오겠지. 난 집에서 해 줄 것이 없어. 내가 가르쳐주면 우리 손주들이 듣거나 하겠어? 뭐라고 말이라도 한마디 할라치면 구식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성질내. 요즘 현대식 엄마들을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어떻게 따라가겠어. 어렵잖아. 어린애들 키우려면 신식을 알아야하는데 우린 몰라. 그래서 손주 애들이 늙은 우리를 무시하기도 해.

(73세 조부 C와 면담, 2008. 7. 26)

이와 같이 조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이나 초등학교에 유아들을 보내고 있으나 가정에서 자신이 손자녀에게 직접 교육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였다. 특히, 조부모 자신이 과거에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교육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있었고, 심지어 최근 교육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단정 짓기도 하면서 자신 스스로 손자녀들 교육의 직접 개입에서는 물러나 있기도 하였다.

나. 유아교육기관에 직접 참여하여 지원하는 것에 대한 버거움

조부모들은 변화된 역할에 적응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 그러나 조부모들은 전통적인 개념의 조부모 역할과 양육 대리자로서의 현재의 역할 사이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조부모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의 제한성, 사회적 고립, 신체적 쇠약 등으로 양육 대리자로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Kelly, 1993).

특히, 대부분의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유아와 부모가 함께 하는 부모교육활동이 매월 실시되고 있는데 조부모들은 신체적으로 쇠약하여 행사 준비에 도움을 주는 도우미 학부모 역할은 당연히 힘들고, 심지어 부모 자격으로서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행사에 직접 참여하기조차 힘들기 때문에 조부모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관련된 조부모와의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큰 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이라서 둘째 손자를 학교 유치원에 보냈지. 내가 늙어서 학교 행사에 젊은 엄마들처럼

도움도 못하고 시간도 없어서 잘 찾아가지도 못하니까 2학년 누나에게 의지하라고 일부러 같은 학교에 보냈어. 이렇게 늙으니 여기저기 아픈 데만 생기고 유치원이나 학교에다 내가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어. 늙은 할매가 가서 일을 해주겠어, 돈이 많아서 간식을 사다주겠어. 그냥 선생님께 미안하지. 애만 맡겨놓고 가질 못하니...

(72세 조모 A와 면담, 2008. 7. 12)

하루는 손녀가 와서 울었어. 다른 엄마들은 소풍도 잘 따라와서 게임도 해 주고 어린이집에 와서 도와주기도 한다고. 난 그걸 못해. 나도 불쌍한 내 손주 보면 당연히 해주고는 싶지. 그런데 몸도 아프고... 늙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전혀 도움을 못 줘. 어린이집 보내도 우리 손주들 앞으로 보육료가 나오니까 보내지. 안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보낼 꿈도 못 꾸지. 어린이집에서 행사를 할 때 젊은 엄마들은 뭘 도와주기도 하고 애들하고 같이 어린이집 수업에 참여하기도 하더구만. 나는 당장 살 일이 막막한데 어린이 집에 갈 수가 없지. 우리 손주에게 미안해도 어쩔 수가 없어.

(68세 조부 F와 면담, 2008. 10. 11)

우리 아들, 며느리가 이혼을 해서 연락이 거의 없어. 내가 손주들을 어쩔 수 없이 맡았지만 하루하루가 힘들어. 사는 것도 힘든데 늙은이가 뭘 정신으로 손주 유치원 행사에 가겠어. 젊은 엄마들이 운동회 때는 내 대신 달려주기도 하고, 고맙지 뭐. 나는 가고 싶어도 시간도 없어. 나 혼자 손자를 돌이나 키워야 하는데 유치원 가서 도와줄 시간이 어딴. 그리고 늙은이가 가는 것도 창피하지. 선생님들도 불편하잖아,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오면. 유치원에 한 번 가 봤는데 뭘 소리인지 도통 알 수가 없어. 늙은이 들한테는 어려워.

(76세 조모 B와 면담, 2008. 7. 19)

이와 같이 조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특히, 매월 부모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조부모들이 함께하여 젊은 학부모처럼 유아교육기관에 지원을 하거나, 또는 신체적으로 움직임이 많은 형태로 참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조부모들이 많은 부분에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조부모가 또래아이나 주위사람을 고려했을 때: 버려진 내 손자, 두 번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가. 또래 아이보다 못나고 불쌍한 아이로 보는 주변 사람들의 편견

편견이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치우친 생각으로 어떤 사물에 대한 편애, 싫어함, 두려움을 통해 나타나는 견해나 경향을 의미하는데(김영옥, 1998),

조부모-손자녀 가정의 유아들은 주위 사람들로 부터 많은 차별적 시선을 받기도 한다.

유아는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인 평가를 기초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 스스로 평가를 내리기 때문에(이은화, 김영옥, 2006), 조부모들은 자신이 양육하는 손자녀가 주변 사람들의 편견으로 인해 또 한번 상처를 받을 것에 대해 걱정을 하였다. 이와 관련된 조부모와의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아들, 며느리가 돈이 없어서 내게 손주를 맡긴 것도 속상하지. 그런데 부모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크다고 우리 손주를 또래보다 못나게 보는 것이 무섭고 싫어. 손주가 그러는데 친구들이 부모 없다고 놀린다는 것이야. 유치원 행사 때 '아버지의 날'이 있다고 해서 바쁜 시간 쪼개서 내가 갔지. 우리 손자 불쌍해서 어렵게 갔어. 근데 친구들이 놀렸대. 선생님이 아빠 없으면 할아버지가 와도 된다고 해서 내가 갔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도 친구들이 놀려서 할아버지 유치원 오는 것이 싫다고 울었어. 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더만.

(69세 조부 D와 면담, 2008. 9. 20)

난 할멈도 없이 우리 손주 둘을 키우고 있어. 힘든 일이 많지. 사람들이 우리 손주를 이상하게 보는 것이 싫어. 항상 부모 있는 자식들보다 우리 손주들을 더 부족하게 쳐다 봐. 저녁이면 우리 손주들이 울어. 자기 엄마, 아빠 어딴다고 소리 지르며 울 때 불쌍해서 미치겠어. 동네 사람들이 '이혼해서 버렸다'고 자기애들 있는데 집에서 이야기를 했나 봐. 그러니 어른 말을 듣고 애기들이 우리 손주들에게 자꾸 놀려. '네 엄마는 이혼해서 다른 데 시집가고 너만 시골에 왔다'고. 애들이 뭘 잘못이겠어. 속없이 그런 말을 애들 앞에서 하는 어른이 잘못이지. 우리 애들은 자기 부모한테 버려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또 버려지는 꼴이야. 이런 것이 힘들어. 손주들이 불쌍하지.

(68세 조부 F와 면담, 2008. 7. 5)

이와 같이 조부모들은 자신이 양육하는 손자녀 유아들이 또래 아이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의 편견과 이로 인해 또래 아이들에게 놀림 당하고 무시 받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힘들어 하였다.

나. '내 손자 부모는 서울에, 미국에' 어쩔 수 없는 거짓말

Ekman(1994)은 거짓을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이 잘못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보고, 거짓행동을 의도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해도 괜찮은 거짓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거짓행동으로 나누었다. 해도 괜찮은 거짓말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거나 도움이 되는 행동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행동이며, 반면에 해서는 안 되는 거짓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기 위한 거짓행동과 자기 실속만을 차

리기 위한 이기적인 거짓행동이라고 정의 내렸다.

농촌지역 조부모-손자녀 가정의 유아들은 부모의 이혼, 별거,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중병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조부모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조부모는 이러한 상황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였기 때문에 손자녀들이 직·간접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동시에 동네 사람들에게 조부모 자식들의 창피한 상황이 드러나지 않게 보호 하고 싶은 마음으로 손자녀의 부모가 서울이나 미국에서 돈을 벌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관련된 조부모와의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들, 며느리가 이혼을 했는데 아들이 재혼을 했어. 새 며느리가 임신을 해서 손주를 못 키우겠다고 잠시 키워달라고 맡겨놓고 갔어. 그런데 애한테도, 동네사람들한테도 창피해서 내가 아들, 며느리는 서울에서 잘 산다고 거짓말을 했어. 우리 손주들은 엄마, 아빠가 서울에 살고 있는 줄 알아. 돈 많이 벌면 데리러 온다고 했거든.

(72세 조모 A와 면담, 2008. 10. 18)

둘 다 이혼을 했는데 둘 다 재혼을 했어. 손주를 여기에 두고도 연락도 잘 안 해. 자기들 핏줄인데도... 동네가 손바닥이라 소문나면 애들 손가락질 받을까 봐 거짓말을 했지. 서울에 있다가 미국 갔다고 해 버렸어. 우리 손주들도 엄마, 아빠 찾으면 미국 가서 오래 있다가 온다고 했어.

(68세 조부 F와 면담, 2008. 10. 11)

별거 중인 아들, 며느리들이 연락을 안 해. 둘째가 여자 아인데 오자마자 어쩌나 엄마를 찾고 울던지... 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나도 애를 안고 울었어. 그래도 사람들 눈치 챌까 봐 미국에 갔다고 했지. 서울에 갔다고 하니까 서울은 가깝다고 울이 손주들이 서울 가자고 해서 미국이라고 해 버렸어. 동네 사람들이 눈치를 챘을 것이야. 그래도 나는 무조건 미국에서 돈 벌고 있다고 했어. 이래야 다른 사람들이 덜 놀릴 것 같아서.

(67세 조모 C와 면담, 2008. 9. 11)

위의 사례와 같이 조부모들은 자녀의 이혼이나 별거의 상황이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손자녀가 주변 사람들이나 또래에게 놀림의 대상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손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다.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조부모-손자녀 가정 유아를 양육하면서 나타나는 조부모의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해 조부모와의 심층면담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어려움은 조부모가 4 가지 측면 즉, '자신', '유아', '유아교육기관', '또래아이나 주변사람들'을 고

려했을 때'로 나눌 수 있었으며, 4가지 범주에 따른 대주제는 '돈없이 늙어가는 나약한 몸으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 '한없이 불쌍한 손자라는 생각으로 인한 양육태도의 갈등', '최근 교육에 대한 무지함과 두려움으로 인한 교육지원의 어려움', '한 번 버려진 손자, 두 번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부모-손자녀 가정 유아의 양육에 대한 조부모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조부모가 자신을 고려했을 때: 돈 없이 늙어가는 나약한 자신의 몸으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농촌지역 조부모들은 '늙어가는 나약한 몸, 산더미 같은 농사일, 아이 아플 때 병간호하기도 힘든 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즉, 조부모들은 노령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쇠약해져서 크고 작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부모 삶의 계획과 상관없이 갑자기 손자녀까지 양육을 하게 된 상황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조부모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우려 뿐 아니라 농촌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농사일이 많아 손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내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손자녀가 아팠을 때 자신의 늙고 아픈 몸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조부모가 중년기 후반이나 노년기에 접어드는 연령에 있기 때문에 체력저하로 건강문제가 심각하게 초래될 수 있고, 육아활동으로 인한 사회활동 제한이나 고립감과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느낄 수 있는 등 조부모들은 3세대 유아양육을 통해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부담을 경험하게 된다는 Dowdell과 Sherwen(1998)의 연구와 유사하다. 같은 맥락으로 김혜선(2005)도 농촌지역에서 손자녀를 전담하여 양육하는 경우 저소득층 조부모들은 연령의 증가로 인해 노동집약적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사회적 지원체계의 부족으로 인해 조부모들의 손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은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위보다는 손자녀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관심을 쏟게 되어(김혜선, 2005; Minkler, 1999), 조부모-부모-손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일반적인 가정의 조부모들보다 건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Stawbidige, Wallhagen, Shema, & Kaplan, 1997)고 한다. 이와 같이 조부모들은 손자녀를 돌보느라 병원에 갈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Minkler, 1999), 심지어 조부모가 건강이 악화되어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부모

와 분리됨을 경험한 손자녀에게 또 다시 분리됨을 경험시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더 큰 문제는 당장 손자녀를 양육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심각한 건강 악화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손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Roithmayer, 2001). 이처럼 조부모의 신체적 건강은 조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며 손자녀의 긍정적인 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고 새롭게 형성된 가족의 안녕과도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김혜선, 2005). 따라서 농촌지역 조부모들 및 손자녀를 위한 건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농촌지역의 조부모-손자녀 가정에 대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파악이 급선무일 것이다. 그 후에 농촌지역 조부모-손자녀 가정을 위한 건강 서비스 및 농촌 봉사활동과 같은 사회적 지지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농촌지역 조부모들은 '살아가는 것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경제적 빈곤'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즉, 조부모들은 경제력을 상실한 노년기에 손자녀의 양육비만으로도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정일선, 2004).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촌지역의 조부모-손자녀 가정의 조부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가 현저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결손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세대와는 달리 최악의 상황에서도 아무런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한 농촌 유아의 현실과 맞물려 농촌 조부모들의 정서적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김정은, 2002; 김혜선, 2005). 또한 농촌 노인 4명 중 3명의 한 달 용돈이 10만원도 못되는 농촌 현실 속에서 의료비는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이며(한겨레, 2005. 2. 11), 저소득층의 조손가정 조부모들은 노후 생활비의 주 수입원을 자녀에게 의존하는 일반 조부모들과는 달리 자녀가 생활비를 주는 경우도 거의 없었고, 빈곤이라는 취약한 환경 때문에 정부로부터 생계 지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의 비공식적 지원 외에는 정서적이거나 사회적인 지원을 제공받기 어려웠다. 그 결과 일상적인 활동, 삶의 의미, 목표, 사회적 교제 등에서 일반 조부모들보다 더 낮은 만족도를 보이며, 조부모의 자존감이나 자발성, 인간관계 등도 약화될 수 있는 상황(김정은, 2002)이었다. 이와 같이 만성적인 노인병과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지역 조부모들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부양책임을 맡은 후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오마이뉴스, 2005. 8. 25)에서, 조부모-손자녀 가정의 개념을 정립하고 지역공동체 안에서 조부모와 손자녀를 배려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하며,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손자녀는 또 하나의 '소수자'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주체'로 전면에서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2. 조부모가 유아를 고려했을 때: 한없이 불쌍한 손자라는 생각으로 인한 양육태도의 갈등

본 연구에 참여한 농촌지역 조부모들은 '한없이 불쌍한 손자라는 생각으로 인한 양육태도의 갈등'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즉, 조부모들은 부모와 떨어져 자신과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불쌍한 손자녀에게 엄하게 양육하는 것은 손자녀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무조건 감싸주거나 마음대로 하라고 방임하기도 하였고, 다른 한 편으로는 부모 없이 조부모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더욱 엄하게 양육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부모들은 이러한 양육태도로 손자녀를 교육하다가도 손자녀를 바라볼 때 불쌍하다는 생각과 자신을 힘들게 하는 문제의 원인이라는 생각이 잠재적으로 밀받침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를 고집할 수 없었다.

몇몇 조부모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원인이 손자녀의 양육이라는 생각으로 손자녀를 확대하고 방임하는 경우도 있었고(Minkler, 1999), 가족의 해체를 경험한 유아가 양육 초기부터 정서·행동에 많은 문제를 보이게 되어(Webster-Strartron & Herert, 1994), 조부모들이 일관성 있게 손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하기도 하였다. Ahmann과 Shepherd-Vemon(1997)은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 하나로 조부모 자신의 격양된 감정이나 조절하지 못한 화가 손자녀에게 전달되어 조부모 자신의 양육태도에 혼란이 오기도 한다고 하였다. 조부모들은 손자녀들이 자신에게 맡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식을 잘못 키운 조부모 자신의 문제라고 자책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감정(Minkler, 1999)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부모 자신의 양육태도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기 때문에 손자녀에게 일관되지 못한 양육태도(Elkind, 1990)가 나타나는 것이 손자녀에게 미안하면서도 힘든 점이라고 하였다.

양육자가 유아를 따뜻하게 돌봐주며 일관된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유아들은 협력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하지만(Baumrind, 1967), 반대로 양육자와 유아간의 부정적이고 강압적인 상호작용이 많으면 분위기에서는 거부와 차가움이 깃들며 유아가 발달상 행동장애를 나타낸다(Guidubaldi & Perry, 1985). 따라서 조부모들은 손자녀를 위해 확고한 규칙과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일관되며 신뢰할 만하고 안정된 주양육자로서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또한 책임감 없이 떠나버린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 자신

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수 있는 대화자로서 조부모의 역할이 필요하다(Brown, 2003). 이에 조부모들에게 손자녀를 위한 일관성 있는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제공해 주기 위해 유아교육기관이나 지역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조부모를 위한 손자녀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3. 조부모가 유아교육기관을 고려했을 때: 최근 교육에 대한 무지함과 두려움으로 인한 교육지원의 어려움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농촌지역 조부모들은 '짧은 배움, 구닥다리 배움은 오히려 아이 교육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유아를 위한 조부모의 직접적인 교육 지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즉, 조부모 자신이 학력이 매우 낮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손자녀들을 교육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어려운 일이라고 단정 짓는다는 것이다. 또한 김혜선(2004)은 조부모들이 학교를 다녔던 때가 시대적으로 현재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하여 지도의 열성을 보인다거나 새로운 교육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처럼 최근 급변하는 교육상황 때문에 젊은 부모들도 자식을 교육하는 것에 대해 힘들어 하는데, 농촌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노령의 조부모들은 교육적으로 유아를 가치 있게 양육한다는 것 자체를 힘들다고 생각하며 자신감이 결여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조부모 가정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전담 양육하는 실태를 담임 교사들이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및 자원봉사활동자를 연계하고 지역사회 자원망을 구축하여 활용함으로써 조부모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농촌지역 조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에 직접 참여하여 지원하는 것에 대한 버거움'을 호소하였다. 즉, 조부모들은 노년기에 일반적인 조부모들과 달리 갑작스럽게 손자녀를 전담 양육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게 된 상황에서 새롭고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는 조부모의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에 영향을 주는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Atchley(2000)와 Minkler(1999)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었다. Kelly(1993)는 조부모들의 새로운 역할 중에 손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원활한 학습교육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것에 대해 조부모들이 적지 않은 양육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빈

번하게 실시되고 있는데, 농촌지역에서 농사일로 바쁜 조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을 찾아가기 위해 시간을 낸다는 것이 힘들었고, 어렵게 시간을 내어 손자녀의 유아교육기관을 찾아가다 해도 노령으로 인해 신체활동에 제한이 많은 조부모들은 젊은 학부모처럼 부모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부모들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힘들고 주위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며 고립감을 쉽게 느끼며 힘들어한다고 지적하였다(Minkler, 1996).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서 조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조부모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조부모가 또래아이나 주위사람을 고려했을 때: 버려진 내 손자, 두 번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본 연구에 참여한 농촌지역 조부모들은 '또래 아이보다 못나고 불쌍한 아이로 보는 주변 사람들의 편견'과 '내 손자 부모는 서울에, 미국에 있다는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을 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즉, 조부모들은 손자녀들이 조손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친구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을 자주 경험하였기 때문에 손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는 서울이나 미국에서 돈을 벌고 있다고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는 의도가 사람마다 다양하겠지만 농촌지역의 조부모의 경우는 Ekman(1994)이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의 유형에 해당된다. 조부모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손자녀의 부모가 잠시 돈을 벌기 위해 다른 곳에 있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손자녀를 주변 사람들의 편견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손자녀의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조부모 가정의 유아를 다르게 보지 않을 것이고, 손자녀들이 조부모에게 부모에게 가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상황도 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조부모들은 생각하였다. 또한, 조부모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 중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의 폐쇄적인 가족문화를 지닌 특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가족의 문제는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하므로 자녀의 이혼이나 별거 등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손자녀에게 부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거나 차라리 손자녀의 부모에 대한 것은 말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옥경희, 2005).

이와 같이 손자녀들은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서 성장할 때,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또래나 주위 사람으로부터 가정상황이 다르다는 이유로 편견을 경험하기도 한다(서현, 이승은, 2007). 특히, 이러한 편견은 가족체로 인해 외상을 경험한 손자녀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조부모-손자녀 가정에 대한 적절한 조기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Worden & Phyllis, 1996), 이를 위해 손자녀 유아들에게는 전문적인 치료 이상의 그 무엇, 즉 보살펴주고 수용하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하다(이재훈외 역, 2001). 결국 손자녀 유아의 생활적응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을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주위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유아를 위한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유아 교사들을 위한 다문화 연수 프로그램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전라남도 보성군, 강진군, 영광군, 함평군, 해남군, 담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촌지역 조부모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조부모-손자녀 가정 유아의 양육에 대한 모든 조부모의 어려움으로 일반화시키는데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다양한 농촌지역과 대상을 포함한 후속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우리나라에서 손자녀의 양육을 전담하는 농촌지역 조부모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부모-손자녀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조부모-손자녀 가정의 유아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어려움을 분석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손자녀를 중심으로 그들이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어떻게 적응해 가는지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조부모와 손자녀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지원하며 소외된 농촌지역의 조부모-손자녀 가정의 유아들이 원활한 전인발달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조부모-손자녀 가정, 조부모, 손자녀, 농촌 지역

참 고 문 헌

경북여성정책개발원(2003). 농촌 여성노인가구의 손자녀 양육실태와 정책과제.
 고선주(1990). 기혼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친정모친과의 상호지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득희, 황경열(1998). 농촌과 도시 노인의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건강상태간의 관계연구. 특수교육연구.

- 21, 95-126.
- 김미혜, 김혜선(2004).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4(3), 153-170.
- 김영옥(2007). 부모교육. 서울: 공동체.
- 김영옥(1998). 반편견 교육을 위한 유아교육과정. 반편견 교육과정을 통한 인간 교육. 제 12회 한국어린이교육학회 유아교육 학술대회, 65-96.
- 김영천(1999). 교과교육과 수업에서의 질적연구. 서울: 문음사.
- 김정은(2002).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심리 정서적 안정과 영향에 미치는 요인.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혜선(2004).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손자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이동복지학*, 18, 85-117.
- 김혜선(2005). 농촌과 도시 지역 손자녀를 전담 양육하는 저소득층 조부모의 정서적 고통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8, 341-378.
- 박창기(2002). 농촌지역 조부모-손자녀가족의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현, 이승은(2007).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25-47.
- 신혜섭(1999). 손자녀 양육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 4, 69-80.
- 안옥선(2000). 농부중 실태 및 관련요인, *농촌생활과학*, 21(2), 37-43.
- 오마이뉴스(2005). 농촌지역 1/3이 조손가정... 사회적 '소수자'로 방치. 8월 25일. 사회면.
- 옥경희(2005). 조부모-손자녀가족 조부모의 손자녀양육.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103-114.
- 이은화, 김영옥(2006). 유아사회교육. 서울: 양서원.
- 이재훈, 박경애, 고중자 역(2001). *박탈과 비행*.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전선재(1997). 소년소녀가장세대 구성원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일선(2004). 농촌조손가정의 형성과 여성노인의 적응.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겨레신문(2000). 어찌할 것인가. 할머니 댁에 맡겨진 아이들. 7월 17일. 사회면.
- 한겨레신문(2005). 65살 이상 노인 가구 절반/연간소득 최저생계비 못 미쳐. 9월 19일, 사회면.
- 한겨레신문(2008). 농촌 조부모 가정 노인 65% '화병'. 7월 31일. 사회면.
- Atchley, R. C. (2000). *Social forces and aging*.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
- Ahmann, E. & Shepherd-Vemon, B. (1997). Kinship care: An emerging issue. *Pediatric Nursing*, 23(6), 598-600.
- Baumrind, D. (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rent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43-88.
- Bogdan, C. R., & Biklen, K. S. (1998). 교육연구의 새 접근: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신옥순 역). 서울: 교육과학사. (원전은 1982에 출판).
- Brown, L. B. (2003).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An In-depth Phenomenological study*. The New Mexico State University Doctor of Philosophy.
- Burton, L. M (1992). Black grandparents rearing children of drug-addicted parents: Stressors, outcomes, and social service needs. *The Gerontologist*, 32(6), 744-751.
- Dowdell, E. B., & Sherwen, L. N. (1998). Grandmothers who raise grandchildren; Across-generation Challenge to Caregivers.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24(5), 8-13.
- Elkind, D. (1990). *Grandparenting: Understanding today's children*. Rosemont, NJ: Modern Learning.
- Ekman, p.(1994). *왜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는가*. 민승남 역. 서울: 정연사.
- Fuller-Thomson, E., & Minkler, M (2000). The mental and Physical Health of Grandmothers Who Raising Their Grandchildren.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ging*, 311-323.
- Guidubaldi, J. & Joseph, D. P. (1985). Divorce and mental health sequelae for children: A two-year follow-up of a nationwide sample. *Journal of the America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4, 531-537.
- Minkler, M. (1999). "Intergenerational households headed by grandparents: context, realitie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Aging Studies*, 13, 192-218.
- Kalish, R. A. (1975). *Late Adulthood; Perspection on human Development*. Berkeley Publishing, Co.
- Kennedy, J. F., & Keeny, V. T. (1998). The extended family revisited: Grandparents rearing grandchildren. *Child Psychiatry Human Development*, 19, 26-35.
- Kelly, S. J. (1993). "Caregiver stress in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5, 331-337.
- Roithmayer, S. (2001). *Emotional distress of grandmother rasing grand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w York.
- Smith, A., & Dannison, L. (2002). *Education educators:*

- Programming to support grandparent-headed families. *Contemporary Education*. 72, 47-51.
- Spradly, J. P.(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 Stawbidige, W, J., Wallhagen, M. L., Shema, S. J., & Kaplan, G. A. (1997). New burdens or more of the same? Comparing grandparent, spouse, and adult-child caregivers. *The Gerontologist*. 37, 505-510.
- Webster-Strarrton, C., & Herert, M. (1994). Troubled families-troubles children: working parents: a collaborative process. Chicheslie; Johnwiley & Sons.
- Worden, J. W., & Phyllis, R. S. (1996). Parental death and the adjustment of school-age children. *Omega*. 32(2). 91-102.
- (2008. 12. 10 접수; 2009. 1. 30 채택)